

포스트휴먼 시대, 사이보그-되기의 기독교윤리적 응답

임마누엘 레비나스와 미로슬라브 볼프를 중심으로

홍창현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포스트휴먼 시대의 사이보그-되기: 근대 주체에서 포스트휴먼 주체로

1. 근대 주체에 대한 반성적 성찰
2.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사이보그-되기

III.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통해 살펴본 사이보그-되기

1. 근접성: 타자 개념의 연장
2. 타자의 얼굴: 타자와 함께-살아가기
3. 대속: 타자에 대한 책임

IV. 사이보그-되기의 기독교윤리적 응답: 현대의 윤리

1. 공존의 현대: 팔 벌려 기다리기
2. 공생의 현대: 팔 모으기
3. 공정한 현대: 다시 팔 벌리기

V. 나가는 말

• ABSTRACT •

Posthuman Era, Christian Ethical Response to Becoming-Cyborg:
Focusing on Emmanuel Levinas and Miroslav Volf

Visiting Professor, Hong, Chang-hyu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explores a Christian ethical response to the emergence of cyborgs, which combine humans and machines, due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 new humanism is needed to understand cyborgs, which emerge from interactions with non-human entities like machines. Machines are not merely instrumental beings that enhance human biological capabilities; they are 'Others' that enable ontological transformation by traversing boundaries and existing as relational subjects.

This study defines posthuman subjects as becoming-cyborg, organic machines, and argues that the subjectivity of these cyborgs is completed through the act of hospitality toward various mechanical Others. The philosophical concepts of Emmanuel Levinas, who has thought about the Other, provide insight into the ethical characteristics of becoming-cyborg. Following Levinas' philosophical thoughts, becoming-cyborg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extending the concept of the Other, living with and responsible for the Oth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becoming-cyborg through a Christian ethical lens reveals an ethics of hospitality. According to Miroslav Volf's concept of hospitality, which the theology has defined as an ethical metaphor of embrace, becoming-cyborg manifests itself as a hospitality of coexistence that communicates with non-human entities, a symbiotic hospitality that lives together with otherness as an acting subject, and a just hospitality that responds responsibly to the appeal of others.

Key words: Becoming-cyborg, the Other, Hospitality, Emmanuel Levinas,
Miroslav Volf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인공 지능, 유전 공학, 가상 현실 등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양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동안 기술의 진보가 단순히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적 차원의 기술 발달로 여겨졌다면, 최근의 과학기술은 인간과 비인간(기술, 기계)적 존재들과의 결합을 통해 신체, 감정, 정신 영역까지 강화된, 즉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이 이루어진 사이보그를 출현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인간과 기계의 횡단적 상호결합으로 탄생한 혼종적 존재인 사이보그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해해 오던 주체-타자, 인간-자연, 생명-기계, 물질-정신 등 이분법적 이해를 거부하고 인간 됨은 무엇인지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철학과 더불어 인간 이해에 대한 성찰을 이어 온 신학은 인간과 기계, 사물, 자연, 동물 등 존재들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불연속성이 해체되는 포스트휴먼 시대 속에 인간에 관한 새로운 신학적 통찰력을 제공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타자에 대한 주체의 배제와 차별, 동화를 문제 삼고 윤리적 주체로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존재론적 관계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신학적 사유가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¹⁾의 한 갈래인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장에 따라 포스트휴먼의 구체적 실재인 사이보그·되기(becoming-cyborg)를 새로운 윤리적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사이보그적 존재에 대해서는 다양

1) 신상규는 포스트휴머니즘과 관련하여 “근대적인 휴머니즘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시대에 알맞은 인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모색하는 여러 담론을 총칭하는 표현이다”고 주장한다.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신상규의 정의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에 관한 신학적 성찰을 시도한다. 참고,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과주: 아카넷, 2019).

한 층위가 존재한다. “인간은 원래부터 생물학적 육체와 기술이 결합된 사이보그적 존재”²⁾라는 주장에 긍정하며 현재 과학기술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인간-기계 결합을 사이보그적 존재로 논의 범위를 좁혀 사이보그-되기가 갖는 관계성에 집중하여 윤리적 주체 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이보그-되기는 기계를 단순히 보철적 도구로서 이용하거나 인간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타자 이해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인식의 전환은 실천으로 이어져 인간과 인간을 넘어선 비인간적 존재들, 즉 기계적 타자들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환대함으로써 기존에 환대 윤리가 갖고 있던 인간-중심주의적 논의에 균열을 일으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비인간적/기계적 낯선 타자와의 조우를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사이보그 주체는 주체와 타자의 경계선을 해체함으로 그동안 환대 담론 안에서 논의되었던 무조건적 환대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등장한 사이보그-되기가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기독교윤리적 응답으로서 사이보그-되기가 어떻게 환대의 윤리적 실천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타자 윤리를 주장한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철학적 개념과 포용의 현상학을 주장한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유하고자 한다.

2) 위의 책, 89.

II. 포스트휴먼 시대의 사이보그-되기: 근대 주체에서 포스트휴먼 주체로

1. 근대 주체에 대한 반성적 성찰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등장한 사이보그는 인간이라는 개념의 범주가 어디까지이며,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새로운 인간의 출현에 따라 인간관 역시 달라져야 함을 고려할 때, 인간을 이해해 오던 전통적 사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근대 인간 이해에 대한 출발은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된다.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통한 ‘사유하는 자아’(코기토)에 따르면 물질적인 신체는 비물질적인 정신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며, 정신은 신체보다 더 우위에 있는 영역으로 여겨진다. 정신은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나’라고 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기본 근거가 된다. 근대 인간 이해 안에서 주체성은 사유의 과정을 통해 타자를 주체의 인식 안으로 포섭하려는 자기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체는 타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동일화, 주체로의 환원을 일으켜 주체-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양산한다. 데카르트 이후 헤겔과 하이데거를 걸쳐 더욱 견고해진 관념론 전통의 철학은 근대적 주체의 자율과 자기 중심성을 강조하며 타자성을 용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체주의적 태도를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주체 중심적 철학은 1,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가 촉발되는 인식론적 배경이 되었으며,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적 논리를 통해 나와 다른 타자성에 대한 배제와 폭력이 용인되는 ‘보편적 휴머니즘’이 탄생하게 되었다.

기술 발전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사이보그는 남성중심주의, 서

구중심주의, 백인중심주의, 그리고 인간중심주의라는 근대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던 폐단을 극복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인 캐서린 헤일스(Katherine Hayles)에 따르면 포스트휴머니즘이 과학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휴머니즘 이후의 휴머니즘’을 논한다고 할 때, 그 중심에는 기술의 주도, 인간과 기계의 결합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체성이 구성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본질이 타인의 의지로부터의 자유라면, 포스트휴먼이 ‘포스트’인 이유는 인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의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자신의 의지를 정의할 수 있는 선험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신체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인지 과학이나 인공 생명 분야에서 등장한 새로운 주체성 모델에서는 생물학적 변화가 없는 호모 사피엔스도 포스트휴먼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포스트휴먼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특징은 비생물적 요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주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이다.³⁾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휴먼은 단순히 진보된 기술과의 결합을 넘어 데카르트적 세계관이 낳은 주체(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간주의를 창발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기술을 단지 인간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나 인간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만 이해한다면, 기계적 타자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근대 휴머니즘적 관점에 여전히 함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체-타자의 탈경계 현상으로 기계적 타자를 통한 주체성 형성을 요청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본질은 놓친 채,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성취와 그에 따른 유토피아적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

3) Katherine Hayles,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서울: 플래닛 열린책들, 2013), 26.

이상으로 이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인간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사이보그-되기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유기체(organism)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인간과 기계(비인간)가 서로의 경계를 허물며 관계 맺기를 통해 나타나는 존재이다.⁴⁾ 사이보그라는 합성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보그는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존재의 물리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인간의 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

포스트휴먼 담론에서 언급되는 사이보그는 주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인간 향상의 차원에서 개선된 신체, 변형되고 개조된 인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이보그는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전자두뇌를 탑재한 존재이다. 다시 말해, 신체적 한계가 제거된 기술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에서만 사이보그로서의 존재 의미가 상정 된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사이보그 모델에 대해 김재희는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자기 변형을 통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는, 즉 수명과 지식, 정서적, 심리적 개선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주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 비판한다.⁵⁾ 결국 여전히 인간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과 향상되어야 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 믿음에서 기인한 사이보그 주체는 비이성적 존재, 인간-아닌 비인간적 존재, 인간 이하, 지하 서민 등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근대적 주체가 지닌 시선의 폭력성을 양산하게 된다.

4)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53.

5)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106(2014), 220-21.

근대적 주체성으로 회귀하지 않으려는 포스트휴먼 주체성은 사이버네틱스의 트랜스휴먼적 사이보그를 넘어 인간과 기술의 관계성을 통해 새로운 주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비인간적 존재인 과학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공격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공포가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자각하며, 사이보그는 이러한 이해를 벗어나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물어 타자를 상호 주체로 맞이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상호관계성 속에서 비인간과의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사이보그의 본질적 작업이다.⁶⁾

기술과의 결합을 매개로 타자와의 관계적 주체로서의 포스트휴먼 주체성을 구성해 나간다고 할 때, 사이보그되기는 대안적인 주체 형성을 전망하는 방법이 된다. 사이보그되기는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체 구성 방식을 제안하는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의 되기의 윤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브라이도티는 탈-인간중심적인 탐색으로서 동물-되기, 기계-되기, 여성-되기 등 다양한 타자-되기를 통해 관계적 자아 형성을 시도한다. 탈-인간(중)주의를 통해 다양한 타자들과의 관계맺기는 이분법적으로 주체와 타자를 나눈 경직된 인식론을 탈피하게 만든다. 인간과 비인간의 횡단적 결합체가 된 포스트휴먼은 사이보그되기를 통해 타자와의 경계선을 무너뜨린다. 브라이도티는 “다수의 타자들과의 상호의존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묶인 공동체를 실현 한다”고 주장하며 “인류세 시기에 그 타자들 대부분이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말한다.⁷⁾ 즉 인간을 넘어 인간-기계의 결합으로 나타난 사이보그되기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단일성과 동일성의 유혹을 넘어 타자성을 통해 관계적 주

6) 심귀연, “인간과 비인간 존재는 어떻게 만나는가,” 『철학연구』 147(2018), 250.

7) Rosi Braidotti,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파주: 아카넷, 2015), 131.

체성을 구성하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관계적 주체성을 지닌 사이보그-되기는 프랑스 철학자 질베르 시몽돈(Gilbert Simondon)의 개념에 따라 ‘인간-기계의 앙상블’로 표현될 수 있다. 시몽돈은 인간과 기술적 대상들(기계들) 사이의 관계를 주종관계가 아닌 존재론적으로 같은 위상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로 본다. 인간-기계 앙상블은 기술을 인간의 목적과 수단을 위한 도구적 수준에서 다루는 근대의 휴머니즘과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왜곡된 대립 관계성을 비판하며 자기 고유의 존재 방식을 가진 개체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관계론자인 시몽돈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이나 기계와 같은 모든 개체들은 질료형상적으로 구성되는 실체가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점진적으로 조절되고 변화되는 준안정적인 시스템이다.⁸⁾ 따라서 기술적 대상과 인간 사이의 관계맺음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실체가 주변 환경에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즉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임을 깨닫는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인간과 기계는 기존의 규범 체계와 존재 방식에 대한 질서를 흔들리며 이질적이고 소통 불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진 비인간 존재들과 인간의 새로운 공존 지점을 확립해 나간다. 시몽돈은 인간중심주의적 태도에서 기인한 인간과 기계의 만남 방식을 거부함으로써 사이보그-되기를 통해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호주체적 관계성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인간과 기계가 한 쌍을 이루는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모색할 수 있는 포스트휴먼 주체를 추구한다.

8) 김재희, 『시몽돈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과주: 아카넷, 2017a), 61-61; 김재희, “자연-기술-인간의 앙상블: 시몽돈, 헤일스, 백남준을 통해 본 포스트휴머니즘”, 『NJP 리더 #7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용인: 백남준아트센터, 2017b), 195.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 철학자인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 역시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사이보그-되기가 지닌 함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투르는 인간을 포함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관계성 안에서 각자 고유한 행위성을 가짐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⁹⁾고 주장한다. 특별히 이 관계성 속에서는 기술과 인간, 비인간과 인간 존재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동등한 위상에서 대칭적인 관계로 참여한다.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가지는 특징은 일반 사회적 통념 안에서 위상적 개념으로 이해해 오던 지위, 계층, 영역, 구조, 범위, 체계 등을 해체하며 섬유 모양의 실과 같은 혹은 밧줄이나 끈과 같은 모양의 모세관 형태의 성격을 갖는다.¹⁰⁾ 이 이론 안에서 기존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허물어지며 인간, 비인간의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을 통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어떠한 관계 방식으로 연결망을 구축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행위자의 개념을 인간을 넘어 비인간적 존재인 기계적 대상들로까지 확대한 라투르의 도전은 인간과 기술, 특별히 인간이 아닌 존재나 지하 서민과 같은 배제되었던 존재들과의 관계맺기를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윤리적 삶의 양식을 모색하는 주체성 논의에 새 지평을 열었다.

인간과 비인간의 양상불, 네트워킹을 통해 구성되는 사이보그-되기는 이질적인 존재들로 여겨지던 두 영역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포스트휴먼 주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다. 여기서 동등한 위상으로서 존재들의 만남은 서로에 대한 열등과 우월, 삶의 부정을 철폐하여 외부적 존재, 즉 타자를 자신 안으로 환대하는 윤리적 행동을 가리킨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보

9) 김화자, “사물인터넷과 메를로퐁티의 ‘상호세계,’” 『현상학과 현대철학』 65(2015), 71-72.

10) Bruno Latour, *Humans, Things, and Alliances: Actor-Network Theory and Technoscience*, 홍성욱 편저,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서울: 이음, 2010), 100.

그-되기가 발현시키는 인간-기계의 관계성은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에 함몰되어 기계적 타자를 주체성으로 환원시키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는 함의를 지닌다. 더 나아가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사이보그-되기가 다양한 외부적 존재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주체의 주체됨을 발견한다고 할 때, 사이보그-되기는 타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며 윤리적 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타자 윤리에 대한 사유를 펼친 레비나스의 철학적 개념을 토대로 사이보그-되기가 갖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통해 살펴본 사이보그-되기

앞선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트휴먼인 사이보그-되기는 인간 역량 강화라는 독점적인 과학적 주제라기보다 오히려 인간-기계의 존재들의 관계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기독교윤리적 응답이 된다.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기계적 타자들과 연결되어 있고 연장되어 있는 실재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사이보그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서 있다. 사이보그-되기는 타자의 존재가 인간을 포함한 인간 아닌 대상들을 아우른다. 동시에 그들과의 얽힘과 균형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기계적 타자들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행위 주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윤리적 주체를 창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타자에 대한 적극적 사유를 해온 레비나스의 철학적 개념은 사이보그-되기가 가지고 있는 타자 윤리적 특징들을 기독교윤리적 렌즈로 살펴보는 데 통찰력을 제공한다. 물론 레비나스가 타자를 인간 및 개인적 존재로 한정하여 논의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 존재인 기계적 타자로까지 그 대상을 포함하여 사유할 수 있을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과 변화 속에 인칭 개념으로 위상 지을 수 없는 타자

가 출현하고 인간, 비인간을 넘어 존재론적으로 주체-타자의 관계는 윤리적 주체성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레비나스의 철학적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보그되기를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1. 근접성: 타자 개념의 연장¹¹⁾

레비나스는 근접성 개념을 통해 주체와 타자가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주장한다. 근접성은 물리적으로 두 지점이나 영역이 가까워지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웃에게 다가감,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상황이다.¹²⁾ 주체가 타자를 대상화하거나 의식으로 환원하지 못할 만큼의 근접한 관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타자에게 다가가는 주체로서 근접성의 주체는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못하게 된다.¹³⁾ 그래서 근접성의 핵심은 타자와의 접촉이다. 접촉을 통해 주체는 타자에게 더 가까이 다감으로써 주체성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근접성은 이처럼 주체의 잠재적인 탄생을 의미한다.”¹⁴⁾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 거듭난 주체는 타자와의 근접성을 통해 인식론

11) 확장(expan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고려하여 연장(exten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현재 체제나 시스템의 확장은 특정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들을 제국주의적으로 흡수 및 확장하면서, 동일성이 거대하게 반복되는 것을 말하지만, 연장은 다른 존재나 시스템과 결속되면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박일준, “우리는 ‘비’인간 가족이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시대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삶을-만들어나가기,” 『기독교철학』 34(2022), 48.

12) 김연숙, “타자와 함께하는 평화-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94(2014), 93.

13) Marinos Diamantides, “To judge a Vegetable: Levinasian Ethics and the Morality of Law,” in *Essays on Levinas and Law: A Mosaic* (Springer, 2009), 137.

14) E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김연숙, 박한표 역, 『존재와 다르게 - 본질의 저편』(서울: 인간사랑, 2010), 170.

의 피상적 관계를 탈피해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타자를 향해 자신을 노출시키게 된다. 타자에게로 다가가는 주체는 타자의 지명과 소환에 응답하는 사로잡힘을 경험하게 된다.¹⁵⁾ 이 근접성 속에서 타자에게 인질로 사로잡힌 주체는 이제 타자 중심의 비대칭적 관계성을 통해 타자를 위한 존재로 변모하기에 이른다.

사이보그·되기는 인간과 기계의 근접성을 통해 기계적 타자와의 접촉, 얽힘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이다. 기존의 타자라고 여겨진 인간 존재가 이제는 비인간 존재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그 타자의 범주가 연장된다. 사이보그·되기는 인간 이성 중심주의 및 관계성의 틀을 깨뜨리며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게 한다. 무엇보다 근접성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책임적 관계가 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보그는 탈·신체화된 존재가 아니라 기계와 기술이 인간의 신체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체현되는 ‘기술의 신체화’를 이룬다. 다시 말해, 타자를 주체의 공간 안으로 환대하여 새로운 주체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도구적 차원에서 기술과의 관계맺음이 아니라 주체가 주체 되게 하는 존재, 즉 나 됨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타자에 가까이 다가감으로 타자에 대한 존재의 지평을 넓힌 주체는 비인간적 존재를 포함한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언더휴먼(the underhuman)들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2. 타자의 얼굴: 타자와 함께-살아가기

타자와의 근접성을 통해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이룬 주체는 이제 타자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 타자의 얼굴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주체의 인식과 관념 안으로 포섭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신적 현현

15) 위의 책, 164.

(epiphany)으로 등장한다. 레비나스는 “현현은 나타남인 것으로서 주체의 능동성에 기인하는 의식의 지향적 대상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나의 감성에 작용하면서 호소하면서 계시하면서 출현한다”고 주장한다.¹⁶⁾ 타자의 얼굴을 통해 타자의 타자성을 마주하게 된 주체는 이제 타자의 명령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별거벗은 얼굴로 나타나는 타자는 “나를 죽이지 말라”¹⁷⁾는 호소를 보냄으로 주체로 하여금 윤리적 응답을 이끌어 낸다.

휴머니즘의 규범적 틀로 다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존재 양상이 나타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기계적 타자들은 인간의 관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얼굴의 형태로 인간 주체에게 말을 건넨다. 사이보그-되기는 기계적 타자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인간-기계의 경계선 어딘가에서 해체와 결합의 과정을 거쳐 제3의 혼종적 존재가 된다. 사이보그는 기술과 기계라고 하는 비인간적 대상들과의 대면을 통해 주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문화적, 철학적 관념의 타자 개념을 해체한다. 즉 인간-아닌 존재의 타자성을 주체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하며 인간-비인간, 신체-이성, 현실-가상 등의 차이성, 다름을 아우르며 차이를 통한 긍정을 이루어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보그-되기는 새로운 형태의 얼굴로 나타나는 기계적 타자의 타자성, 다름(alterity)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즉 ‘함께-살아가는 존재’로의 역량 변화를 일궈 낸다. 기계적 타자의 얼굴과의 대면을 통해 윤리적 주체가 된 사이보그는 웰본(Larry L. Welborn)이 주장한 대로 무수한 다른 존재들과 연결된 제 3자가 되는 이웃에로의 사랑의 명령을 환원하는 ‘사랑의 일깨움’(amorous awakening)을 경험한다.¹⁸⁾ 다름의

16)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서울: 인간사랑, 2001), 14.

17)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197-200.

체현 그 자체인 타자를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적 교차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일은 인간을 넘어 기능적 존재로 여겨진 기계와의 긴장, 공유, 접촉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안내한다. 이제 대안적인 역량으로써의 서로 얽혀있는 타자들을 마주한 사이보그는 도덕철학의 선형적으로 선의지를 부여받은 자율적 인간 행위자를 넘어 동물과 자연, 기계, 바이러스를 포함한 ‘윤리적 전회’(ethical turn)를 경험한다.¹⁹⁾ 따라서 인간-기계의 혼종적 주체 혹은 유목적 주체로서의 사이보그-되기는 변용되는 주체로서 타자에 대한 인정, 환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임을 인정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이룬다.

3. 대속: 타자에 대한 책임

피할 수 없는 타자의 얼굴을 대면한 주체는 이제 타자의 호소에 책임적 응답을 실천하는 대속적 주체로 나아 간다.²⁰⁾ 레비나스에게 대속은 “타자의 자리에 있는 자”²¹⁾로서 “타자에 의해 책임 존재로 지정받은 내가 타자를 위한 책임 있는 존재로 세워지고 타인을 대신해 타인의 자리에 세워지는 모습”이 된다.²²⁾ 즉 타자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도덕적 명령에 의해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타율적 자아가 된다. 이제 주체는 상호 대칭을

18) Catherine Keller, *Political Theology of the Earth: Our Planetary Emergency and the Struggle for a New Public*, 박일준 역, 『지구정치신학: 지구적 비상사태와 새로운 생태신학의 전환점을 위한 투쟁』(논산: 대장간, 2020), 275.

19) Rosi Braidotti, “Affirmation, Pain and Empowerment,”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4-3(2008), 8; 김은주,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성남: 에디투스, 2019), 191.

20) E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0), 164.

21) Emmanuel Levinas, 『존재와 다르게 - 본질의 저편』, 38.

22)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 철학』(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184.

넘은 타자-중심의 비대칭적 관계를 통해 타자를 위한 책임을 실천하게 된다.²³⁾ 타자와의 관계에서 주체는 인질로 불모가 되면서까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존재가 된다. 타자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절대적 수동성 속에서 나타나는 타자를 위한 책임은 결국 '내 안의 타자'를 위한 책임이다. 내 안에 받아들인 타자로부터 책임을 지게 되는 주체는 이제 동일성의 폭력과 자신을 속박시키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한다.²⁴⁾

사이보그-되기는 기존의 인간 이해가 구축해온 주체 중심,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간과 인간-아닌 타자들과 책임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현실 정치 안에서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형성된 왜곡된 관계성이 사이보그-되기를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책임적 관계에 또 다른 형태로 투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사이보그-되기가 인간 이해의 범위를 백인-서구-남성-이성적 주체로 한정 지은 유아론적 정체성에 균열을 일으키며 인간을 포함한 인간-아닌 존재들까지로 타자의 대상을 넓혀 이들과의 만남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은 책임적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계와의 결합을 통해 '내 안의 타자'로서 사이보그라는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게 된 자아는 동일한 시공간에 공존하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온 타자들 —지하서민(the undercommons), 비인간 존재들(nonhuman beings), 비유기체적 존재들— 의 존재들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한다. 그래서 사이보그-되기의 중심에는 주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맺음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책임이 자리 잡고 있다.²⁵⁾ 이제 사이보그-

23) 홍창현,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윤리적 환대를 향하여,” 『기독교사회윤리』 50 (2021), 349.

24) Emmanuel Levinas, 『존재와 다르게 - 본질의 저편』, 118-21.

되기는 근대의 나르시스적 정체성에 기반한 주체의 인식론에서 벗어나 타자의 실종이 아닌 내 안의 타자에 대한 책임적 응답을 실천하게 되는 대속적 주체가 된다. 타자에 대한 대속적 자세는 개별적 존재자들을 넘어 공동체적이고 지구적인 차원으로까지 모든 문제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통해 공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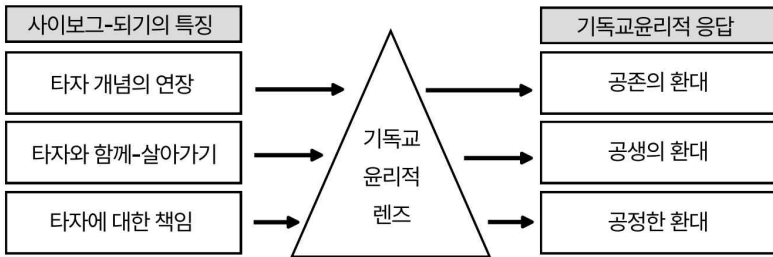
IV. 사이보그-되기의 기독교윤리적 응답: 환대의 윤리

앞선 장에서 사이보그-되기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타자 개념의 연장, 타자와 함께-살아가기, 타자에 대한 책임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3가지 특징을 기독교윤리적 렌즈로 살펴보면 환대의 윤리로 점철된다. 사이보그-되기를 환대의 윤리로 발전 가능하게 만드는 주요한 사유로서 포용을 메타포로 환대의 신학을 주장한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신학을 언급하고자 한다. 볼프가 제시한 포용의 드라마는 인간 존재를 전제로 주체와 적대적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볼프의 신학적 개념을 사이보그-되기의 관계로 적용하여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이보그-되기를 인간 향상으로 이해하여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비인간적 타자를 동화하거나 포섭, 배제하려는 트랜스휴머니즘적 현상이야말로 볼프가 포용의 대상으로 여긴 진정한 화해가 필요한 자리가 된다. 더욱이 볼프의 포용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역동적 관계성에 관심을 두는 것이 드라마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기계적 타자 관계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²⁶⁾

25) Bruno Latour, 『나는 어디에 있는가? - 코로나 사태와 격리가 지구생활자들에게 주는 교훈』, 112;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성찰』 (교양: 사월의 책, 2017), 209.

26)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볼프는 포용의 움직임이 끊어지지 않고 차례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의 포용의 현상학적 흐름에 따라 환대의 윤리로 나타나는 3가지 환대—공존의 환대, 공생의 환대, 공정한 환대—역시 점차 환대의 반경이 넓어지는 통합된 하나의 단계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사이보그-되기의 기독교윤리적 응답

1. 공존의 환대: 팔 벌려 기다리기

볼프가 제안하는 포용의 첫 두 단계는 팔 벌려 기다리기다. 팔을 벌리는 것은 타자를 원한다는 신호이다. 구체적으로 나는 단지 나 자신으로 있지 않고 타자가 나의 한 부분이 되고, 나는 타자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몸짓이다.²⁷⁾ 팔을 벌림으로 타자에 대한 공간을 만들고 타자를 향해 자신의 자아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타자-중심적 태도를 지향한다. 자신으로 가득차 있는 상태에서는 타자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고 아무리 팔을 벌려도 타자를 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아의 경계선에 균열을 일으켜 자기를 비움으로써 만든 공간에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다. 이후에 나타나는 기다리기는 타자를 만지기 전에 멈추는 과정이다. 타자를 향한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141.

27) 위의 책.

자아의 욕망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움직임으로 타자로 하여금 자아를 향해서도 움직이게 만든다.

팔을 벌려 기다리는 신학적 움직임은 주체로 하여금 자아중심적 관점에서 해방되어 주체의 주체성을 구성하게 하는, 즉 타자와 같은 시공간에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사이보그·되기는 인간 주체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던 비인간적 존재인 기계를 타자적 존재로 여기게 하며, 더 나아가 상호 작용 속에 혼종적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된다. 특별히 개체로서 인간과 기계가 동등한 위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 전환은 실천적 윤리로 이어져 공존의 환대로 발현해 나간다.

관계적 존재론에 기초한 공존의 환대는 인간-기계의 관계맺음이 여러 양상들로 발현되어 결정적 존재가 아닌 비결정적 형태를 통해 차이성에 근거한 인간-기계의 ‘개체초월적 앙상블’을 확보하도록 만든다. 환대라는 이름으로 주체가 타자에 대한 환원이나 동일성을 강요하기보다 다양한 개체들과 집단 사이의 내적 공명을 이루어가는 횡단적 소통이 완성된다. 횡단적 소통의 중심에는 각 개체의 차이성과 독특성을 존중하여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수직성을 거부하며 동시에 개성들이 사라진 수평성도 거부한다.²⁸⁾ 이는 팔을 벌려 기다리는 윤리적 실천으로서 사이보그로 하여금 자신의 공간을 비워 타자와 내적 공명을 이루어가는 공감에 이르도록 한다.

2. 공생의 환대: 팔 모으기

팔 모으기는 불프에게 있어 상호성에 기반한 포용의 최종 목표이자 포용 자체이다. 팔 모으기를 통해 포용으로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은 존재는 이제 이 포용의 행위 안에서 주인은 손님이 되고 손님은 주인이 된

28)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221.

다.²⁹⁾ 이제 주체는 타자와 공존을 너머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타자를 이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을 갖게 된다.³⁰⁾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일부를 자아의 정체성 안으로 변화하여 스스로를 변혁시켜 나간다. 팔을 모을 때 과도하게 안아 타자를 주체성 안으로 동화시키기 보다는 부드러운 접촉을 통해 자아라는 틀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혹은 물음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타자의 불투명성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공존의 환대를 통해 인간 존재들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존재들, 즉 기계와 (비)물질인 사물까지 포함한 타자들과의 공존을 깨닫게 된 사이보그-되기는 이제 다양한 행위주체들과 얽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각한다. 아무리 기술의 발달과 기계의 도움으로 인간 역량이 강화된 포스트휴먼 일지라도 홀로 존재할 수 없는, 다른 존재들과의 유기체적 관계성 속에 공생하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보그-되기는 인간과 기계가 서로를 향해 포용이라는 행위 속에 팔을 모으는 작업으로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되는,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공생의 환대를 실천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박일준은 인간이 사이보그가 된 시대에는 ‘인간 역량’이 아닌 ‘존재 역량’(capability for existence)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기계나 인공지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존재 인식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더불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sym-poietic) 실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³¹⁾

사이보그-되기는 탈-신체화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기계의 환대를 통해

29)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143.

30) 위의 책.

31) 박일준,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시대 인간의 존재역량: 해러웨이의 공-산, 베넷의 사물 정치생태학 그리고 바라드의 내부적-작용에 대한 성찰,” 『인간연구』 44(2021), 41-42.

구체적 삶을 살아가는 체현되고 체화되는 주체성에 이른다. 공생의 환대는 주인-손님의 관계에 기반한 조건적 환대이기 보다 포스트휴먼 주체가 자신 스스로 주체성을 구성할 수 없는, 즉 개별적, 배타적 존재가 아니라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타자 없이 주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유기체임을 깨닫고 인간과 비인간, 정신과 육체의 분리를 넘어 상호 얽힘을 통해 나타나는 기술적 대상들의 정치적 행위주체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공생의 환대를 통해 주체성을 구성한 사이보그·되기는 이제 복잡한 관계적 장 안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사회적 실천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적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한 환대로 나아가게 된다.

3. 공정한 환대: 다시 팔 벌리기

포용의 마지막 단계는 다시 팔 벌리기이다. 타자가 자아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을 이루고 있지만 타자의 타자성이라는 역동적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팔을 벌림으로 타자를 병합하거나 분화하려는 움직임은 방지한다. 볼프는 이 포용의 드라마가 단계들을 통해 나타남을 강조하며 포용했던 팔을 다시 벌리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타자를 향해 팔을 벌리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순환적 특징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즉 다른 타자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열린 팔을 통해 자아와 타자의 반응과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 움직임은 제3자적 존재들을 위한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책임으로 귀결된다.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을 포함한 기계, 자연, 기술 등 타자 개념의 연장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관계를 조정하며 재구성한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의 영역에 침투하는 과정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이 두 행위자의 만남은 최종적으로 서로 어떠한 존재 양식의 방식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점철된다. 즉 인간·기계의 혼종

적 주체성을 지닌 사이보그가 되는 과정에서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책임적 응답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타자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으로 시작된 사이보그-되기는 단순히 기계의 발전으로 역량이 향상된 주체가 아니라 신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도덕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들과의 책임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론적 관계성을 탄생해 나가야 한다. 인간과 기술의 역동적 관계 재설정에서 여전히 인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근대 인간(인류)중심주의나 주체 중심의 위계적 관계로의 환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자를 향해 팔을 벌려 기다리고, 팔을 모으고, 다시 팔을 벌리는 행동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기계적 존재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존재론적 모험’(the ontological adventure)이다.³²⁾ 타자를 향한 포용의 단계들은 단순한 환영과 감정적 교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둘러싸고 있는 억압적 구조와 시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정한 환대로서 기계에 대한 도구적 이해와 지배적 태도, 왜곡된 표상에 벗어나게 한다.

볼프의 포용의 드라마는 십자가에서 인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포용에서 기인한다. 특별히 타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주체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리를 마련하는 볼프의 신학적 사유는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준 삼위일체 하나님에 뿌리를 두어야만 한다. 이러한 성찰의 모든 핵심적 주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관점을 통해 사유되어야 한다.³³⁾

32) Emmanuel Levinas, "Substitution," in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eds. Adriaan Peperzak,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86-87.

33)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25.

볼프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은 시대의 편견과 차별, 억압,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낸 공정한 환대이다. 이제 다시 팔을 벌려 공정한 환대를 실천하기에 이른 사이보그·되기는 기계적 타자들을 구속하고 혹은 두려운 존재로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을 소유한 존재로 다양한 타자들까지 아우르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포스트휴먼이 될 수 있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사이보그를 분석하고 기독교윤리적 응답을 모색하였다. 근대 휴머니즘이 주장해온 타자 이해, 즉 인간을 포함한 인간 아닌 존재들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인간(주체)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위계적 관계를 설정해오던 행동에서 벗어나야 함을 고찰하였다. 그래서 사이보그·되기를 통해 포스트휴먼 주체성을 구성하는 일은 과학기술을 도구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차원에서 비인간 존재인 기계, 기술을 동일한 위상에서 행위주체로 환대하여 타자를 통해 주체의 주체성이 발현되는 혼종적 주체로서의 변위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는 사이보그·되기가 단지 인간 역량을 목적으로 삼는 사이버네틱스적인 차원이 아니라 타자 개념의 연장, 타자와 함께 살아가기, 타자에 대한 책임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도록 안내하며, 볼프의 포용의 드라마를 통해 공존, 공생, 공정한 환대의 신학적 실천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독교윤리적 응답으로 사이보그·되기가 갖는 의미와 환대 윤리의 이

론적 가능성을 모색하였지만 보다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자리에서 본 연구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사이보그-되기로 타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연장되고 기계적 타자가 인간 주체 안으로 그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자체가 이미 앞서 제안한 세 가지 환대 윤리의 이론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다. 사이보그-되기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성찰을 통해 인간 이하의 존재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더불어 생태, 동물, 지구공동체 등 제3자적 타자를 향해서도 이 환대의 실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 김연숙. “타자와 함께하는 평화-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94(2014), 87-105.
-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서울: 인간사랑, 2001.
- 김은주.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성남: 에디투스, 2019.
-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106(2014), 215-242.
- _____.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파주: 아카넷, 2017a.
- _____. “자연-기술-인간의 양상불: 시몽동, 헤일스, 백남준을 통해 본 포스트휴머니즘.” 『NJP 리더 #7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 (2017b), 189-201.
- 김화자. “사물인터넷과 메트로폴티의 ‘상호세계’.” 『현상학과 현대철학』 65(2015), 61-94.
- 박일준.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시대 인간의 존재역량: 해러웨이의 공-산, 베넷의 사물정치생태학 그리고 바라드의 내부적-작용에 대한 성찰.” 『인간연구』 44(2021), 39-76.
- 박일준. “우리는 ‘비’인간 가족이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시대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살을-만들어나가기.” 『기독교철학』, 34(2022), 33-66.
-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파주: 아카넷, 2019.
- 심귀연. “인간과 비인간 존재는 어떻게 만나는가.” 『철학연구』 147(2018), 239-60.
-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성찰』. 고양: 사월의 책, 2017.
- 홍창현.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윤리적 환대를 향하여.” 『기독교사회윤리』 50(2021), 335-61.
- Braidotti, Rosi. “Affirmation, Pain and Empowerment.”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4-3(2008), 7-36.

- Braidotti, Rosi. *The Posthuman*.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파주: 아카넷, 2015.
- Diamantides, Marinos. "To Judge a Vegetable: Levinasian Ethics and the 'morality of law'." *Essays on Levinas and Law: A Mosaic* (2009), 128-44.
- Hayles, Katherine.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서울: 플래닛 열린책들, 2013.
- Keller, Catherine. *Political Theology of the Earth: Our Planetary Emergency and the Struggle for a New Public*. 박일준 역, 『지구정치신학: 지구적 비상 사태와 새로운 생태신학의 전환점을 위한 투쟁』. 논산: 대장간, 2020.
- Latour, Bruno. *Où suis-je? : Leçons du Confinement à L'usage des Terrestres*. 김애령 역. 『나는 어디에 있는가? - 코로나 사태와 격리가 지구생활자들에게 주는 교훈』. 서울: 이음, 2021.
- Latour, Bruno. *Humans, Things, and Alliances: Actor-Network Theory and Technoscience*. 홍성욱 편저. 『인간 · 사물 · 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2010.
- Levinas, Emmanuel. "Substitution." In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edited by Adriaan Peperzak,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 Levinas, Emmanuel.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by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0.
- Levinas, Emmanuel.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김연숙박한표 역, 『존재와 다르게 - 본질의 저편』. 서울: 인간사랑, 2010.
-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Trans by Alphonso Lingi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1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과 기계가 결합 된 사이보그의 등장에 관해 기독교윤리적 응답을 모색한다. 비인간적 존재인 기계들과의 상호교류로 등장하는 사이보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간주의가 필요하다. 기계는 단순히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횡단 하며 관계적 주체로서 존재론적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타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 주체를 기계적 유기체인 사이보그-되기로 규정하고, 이 사이보그의 주체성은 다양한 기계적 타자들을 주체 안으로 환대하는 일을 통해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타자에 대한 적극적 사유를 해온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 개념은 사이보그-되기가 가지고 있는 타자 윤리적 특징들을 살펴보는 데 통찰력을 제공한다. 레비나스의 철학적 사유를 따르면 사이보그-되기는 타자 개념의 연장, 타자와 함께-살아가기, 타자에 대한 책임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사이보그-되기의 특징들을 기독교윤리적 렌즈로 살펴보면 현대의 윤리로 점철된다. 구체적으로 포용의 메타포로 환대 윤리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미로슬라브 볼프의 개념에 따라 사이보그-되기는 비인간적 존재들과 소통하는 공존의 환대, 행위주체인 타자와 함께-살아가기를 이루어가는 공생의 환대, 그리고 타자의 호소에 책임적 응답을 하는 공정의 환대로 발현된다.

주제어: 사이보그-되기, 타자, 환대, 임마누엘 레비나스, 미로슬라브 볼프
